

“참 봉사단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기여”

무주군, 새마을의날 기념식 · 무주군새마을지회장 취임식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지회장 문기득)는 14일 무주수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및 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제2새마을운동’의 나눔과봉사, 배려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운동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제18대 무주군새마을지회장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에는 홍정수 무주군수와 유승열 군의장 백경태 도의원 각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전직 새마을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공로패 홍의택7대지회장, 감사장 송재기 군협의회장, 안성면 박래근 협의회장, 설천면 강선녀 부녀회장과 부남면 최은순 부녀회장 이수상했다.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장 취임식은 문기득 새마을무주군지회장, 박희근 무주군협의회장, 이순희 무주군부녀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문기득 지회장은 취임식에서 “새마을 운동은 근면, 협동, 자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새마을 운동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경쟁력 있는 참봉 단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지회장은 “새마

이·취임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 17대회장 홍의택 · 18대회장

취임 새마을지도자무주군협의회 회장 박희근 취임 무주군새마을부녀회 회장

일시 : 2018. 3. 14(수) 장소 : 무주 은하가든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지회장 문기득)는 14일 무주수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및 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운동은 70여개국으로 수출해 국내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오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무주읍지회가 글로벌 시대에 빌미로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김제경찰서 · 의경어머니회, 소외된 이웃에 훈훈한 사랑 전달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14일 의무경찰어머니회와 함께 김제시 제일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등을 상대로 설령탕 무료급식과 노래공연을 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게 훈훈한 정을 베푸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12타격대원(전역의경)과 의경 어머니회원이 준비한 춤과 노래공연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져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다는 참석자들의 반응이다.

박울진 의경어머니회장은 “지난 설날에 이어 또다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의경어머니회의 지속적인 협찬으로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임실경찰-대한노인회,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임실경찰서는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와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임실경찰서장을 비롯한 여성청소년 연계 직원들과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 사무국장, 경로부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범죄의 가·피해자에 대한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필요한 소속 인력·물적자원을 제공하여 임실군 안심치안 거점에 뜻을 모았다. 김광호 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업으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안심치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기자

순창경찰-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노인 교통사고 예방 · 안전교육 강화 업무협약

순창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순창을 소재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사무실에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순창경찰서장 등 경찰관 4명과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회장 등 5명이 참석하였고,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관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를 약속하였다. 김태형 순창경찰서장은 앞으로 보행자 애광 반사의류 등 교통안전용품 지원 및 교육 강화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인들에게도 애간에 외출 시 밝은 옷 착용과 교통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의 교통안전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당부하였다.



/순창=이양원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토론회

전북지방우정청이 14일 10층 회의실에서 김성칠 청장과 우정청 간부 및 도내 16개 시·군 우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김동·직원행복·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을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칠 청장과 우체국 책임들은 경청과 겸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손권의 리더십을 발휘해 직원들과의 소통경영으로 상호 신뢰를 통해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내 39개소에 달하는 2인관서 우체국 직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인관서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업별 핵심 키워드를 찾아라, 경영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김성칠 청장은 “직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여 조직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문화를 정착하여 직원이 행복하고 출근하고 싶은 우체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우체국을 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 기업으로 믿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회의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가 지난 13일 2층 소회의실에서 특수감금차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남원 송동면사무소, 남원의료원, 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한 각 기관들의 역할분배, 지원 방안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원=유영철 기자

미성동·군산대, 전기시설 정비 재능기부 봉사

군산시 미성동(동장 김성일)은 14일 군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직원과 함께 전기시설 정비 재능기부 봉사를 실시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복지시설지대 조사로 빌려준 독거노인 서*순(84세)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는 중에 주택 노후로 인한 누전으로 전기가 차단되어 냉방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진행됐다.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한 군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직원은 독거어르신이 냉방에서 지내신다는 사정을 듣고 자발적으로 봉사 의사를 밝히고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누전의 원인을 찾아 전기시설을 정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